

주요기사 해설

2007-08-28 [해외]

- **미국 주택경기지표 악화로 주가 하락**

미국의 기존주택 판매량이 7월에 감소한데 이어 주택시장에 나온 주택수가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모기지 시장과 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재발하여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. 다우지수가 0.45, S&P500이 0.9%, 나스닥지수가 0.6% 가량 하락했으며 중소형주 관련지수인 러셀2000 역시 1.3% 하락하였다. 이 같은 하락세의 지속여부는 오늘(28일) 발표되는 소비자지수와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8월 7일 정책결정회의 기록 등의 경제 보고서들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.

CNNMoney.com[2007-08-27]

- **수출, 소매업종의 하락으로 일본증시 하락세 보여**

미국 경제와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재발함에 따라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, 이에 따라 수출과 소매 관련주가 하락세를 보이며 증시하락을 주도했다. 엔달러 환율은 115.56엔/\$ 를 기록하며 상승했다. 미쓰비시 UFJ 증권이 노히로 후지토 부장은 금융시장이 패닉상태는 벗어났지만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투자심리를 위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.

로이터통신[2007-08-28]